

		<b>보도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6. 20.(목) / 총 5매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	•과장 운영중, 사무관 김태윤 ☎ (044) 201-3862, 3863
	경찰청 교통안전과	담당자	•과장 박종천, 경정 호육진, 경감 정현호 ☎ (02) 3150-2152, 0637
보도일시		2019년 6월 2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방송·통신·인터넷은 6.20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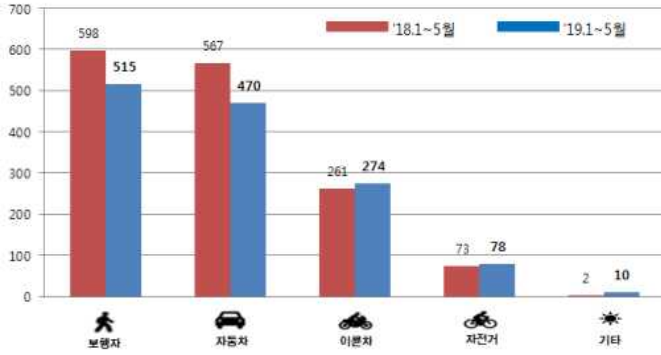
##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, 전년 동기 대비 10.3% 감소 음주음전, 고속도로, 보행자 사망사고 크게 감소... 지속적 감소세 유지

- 사망자 수 1,347명, 전년 동기 대비 10.3% 감소
- 음주운전(32.9% ↓), 고속도로(30.8% ↓), 보행자(△13.9% ↓) 크게 감소
- 광주(56.3% ↓), 울산(46.2% ↓), 대전(26.8% ↓) 등 크게 감소, 인천(22.9% ↑), 제주(6.5% ↑), 경북(2.0% ↑) 등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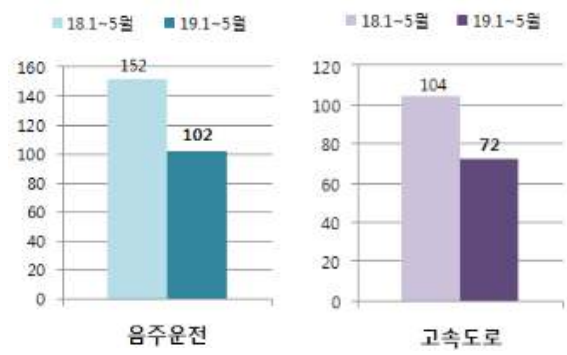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경찰청(청장 민갑룡)은 올해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(1,501명)에 비해 10.3% 감소한 1,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.

- 특히, 전년 동기에 비해 음주운전(△50명, △32.9%), 고속도로(△32명, △30.8%), 보행자(△83명, △13.9%)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상태별 비중을 보면, 보행 중일 때가 38.2%(515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자동차 승차중 34.9%(470명), 이륜차 승차중 20.3%(274명), 자전거 승차중 5.8%(78명) 순으로 나타났다.

<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현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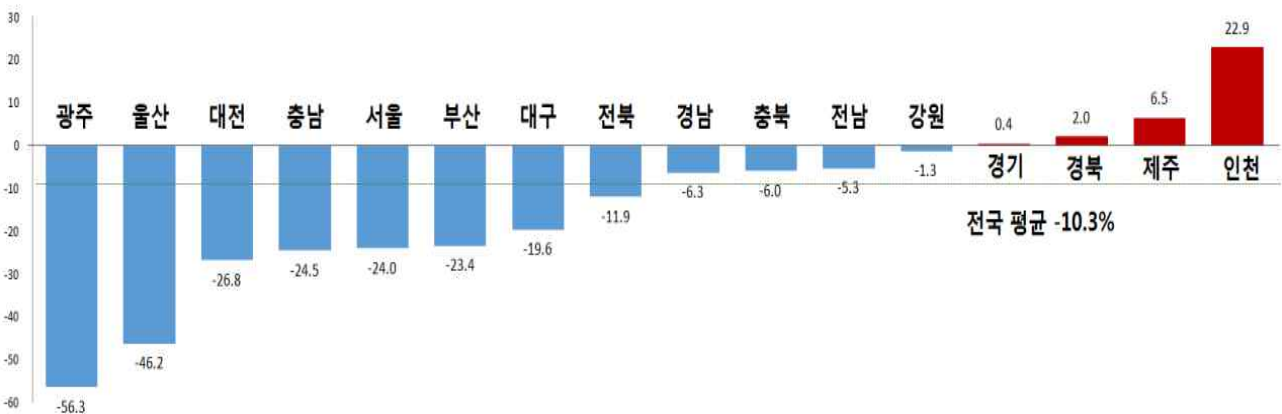
< 주요 지표별 사망자 현황 >



□ 지역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,

- 2018년 동기(1~5월)와 비교하여 광주(△56.3%), 울산(△46.2%), 대전(△26.8%), 충남(△24.5%)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,
- 인천(22.9%), 제주(6.5%), 경북(2.0%)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.

< 전년 동기(1~5월) 대비 지역별 사망자 증감율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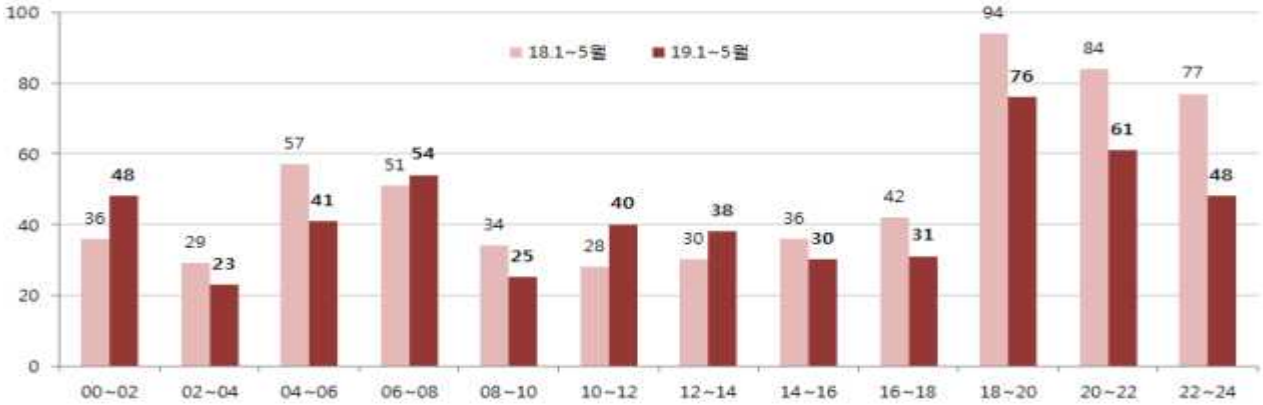


□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

-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(598명) 보다 13.9% 감소(△83명)하였으며,
  - 시간대별로는 18~20시(76명), 20~22시(61명), 06~08시(54명), 22~24시(48명)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출퇴근 및 늦은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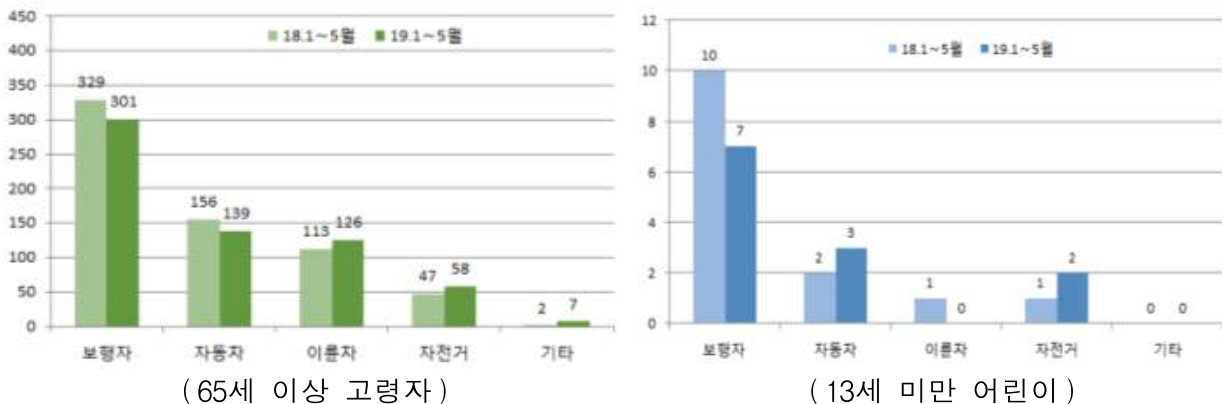
- 무단횡단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년 동기(216명) 보다 25.5%(△55명) 감소했으나, 보행 사망자의 31.3%를 차지하고 있다.

< 보행 사망자 시간대별 발생 현황 >



-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31명으로 전년 동기(647명) 보다 2.5% (△16명) 감소하였다.
- 보행 중일때가 47.7%(301명)로 가장 많았으며, 자동차 승차중 22.0% (139명), 이륜차 승차중 20.0%(126명), 자전거 승차중 9.2%(58명) 순으로 발생하였다.
-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 (312명)와 비교하여 2.6%(8명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13세 미만 어린이는 12명으로 전년 동기(14명)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, 보행 중의 사고가 58.3%(7명)으로 가장 많았다.

< 교통약자 사고 시 상태별 비중 >



-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55명으로 전년 동기(301명)와 비교하여 15.3%(△46명) 감소하였다.
  -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, 전년 동기 대비 시내·시외·고속 버스 등 노선버스가 27.5%(△11명) 크게 줄었으며, 렌터카 19.5%(△8명), 택시 17.9%(△15명), 전세버스 11.1%(△1명) 순으로 감소하였다. 다만, 화물차의 경우 사업용은 19.8%(△18명) 감소하였으나, 비사업용은 6.4%(15명) 증가하였다.
  
- 올해 5월말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대폭 감소(△404명, △9.7%)한 사망자 수가 올해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작년부턴 추진 중인 정부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('18.1~)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  - 특히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경찰과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'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'을 구성하여 매월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
  - 서울지방경찰청은 노상 주취자의 보행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서행 순찰을 실시하고 경찰오토바이와 기동대 등을 사고가 많은 경찰서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 지역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.
  
-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경찰관서가 더욱 관심을 갖고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○ 보행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,

- 이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(안전속도 5030)\*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'차량 소통' 중심에서 '보행자'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.

\* 도시부 제한속도를 60→50km/h로 낮추고, 주택가·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km/h로 지정('19.1~5월 총 459개구간 436.7km 속도하향 완료)

○ 또한,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,


- 사업용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\*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,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,

\* 65세 이상 3년, 70세 이상 1년 주기의 운전적성 자격유지검사제도 단계적 도입 → 버스('16.1. 시행), 택시('19.2. 시행), 화물('20.1. 시행 예정)

-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조명식 도로표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교통사고 현황 발표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○ 특히,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, 지자체 및 지방경찰청·경찰서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 공공누리, 공공데이터, 공공서비스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 정현호 경감(☎ 02-3150-0637),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김태운 사무관(☎ 044-201-3863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